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

- 2차년도 초청연수 -



권홍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홍준 박사후 연구원
 여인수 | 한국도로협회 국제도로센터 여인수 실장
 이겨레 | 한국도로협회 국제도로센터 이겨레 주임

국명 :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수도 : 비엔티안(Vientiane, 약 94.8만 명)
 인구 : 748 만명 (2022, IMF 추정치)
 면적 : 23만 6000km² (한반도의 약 1.1배)
 언어 : 라오어, 성조가 있으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어는 6성, 태국어는 5성)
 종교 :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기후 : 열대몬순
 시차 : 우리보다 2시간 늦음

국토발전전시관 견학



입교식



이론교육 : 한국의 도로포장 기술 발전사

지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간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이 수행 중인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 2차년도 초청연수가 한국도로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앗나다 부름(Ardnada BULOME)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라오스 지방청(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DPWT) 및 관련기관(State Enterprise and University of Lao PDR)에서 총 14명이 참가하였다.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은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2019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한국-라오스 장관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도로인프라 협력 및 지원 약속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특히 라오스 정부 주도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도로건설 환경 조성 및 자립화 기반 지원을 위해 2021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 도로건설 기준 및

품질관리 체계 현대화, 라오스 도로건설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 라오스 비포장도로 개선 최적화 공법 적용 시범사업, 라오스 도로건설 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젊은 인재 육성 등이 있으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마다 초청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총 다섯 개의 이론교육과 네 곳의 현장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연수 시작 전 입교식을 통하여 프로그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입교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광기석 산업혁신부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한 저력이 있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 인프라 건설 시 발생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제 경험을 라오스 전문가와 공유하여 도로 인프라 건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앗나다 부름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부국장은 “한국의 날씨가 라오스 연수생들을 반겨주는 것 같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 도로건설 기준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라오스 연수생들은 우리나라의 도로 관련 조직체계 및 주요 정책, 도로포장 기술 발전사 등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도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활용 중인 SMA 및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적용사례와 기술현황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라오스의 비포장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포장도로의 평가방법 및 저비용 포장공법(침실공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라오스 연수생들은 각 이론교육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현재 라오스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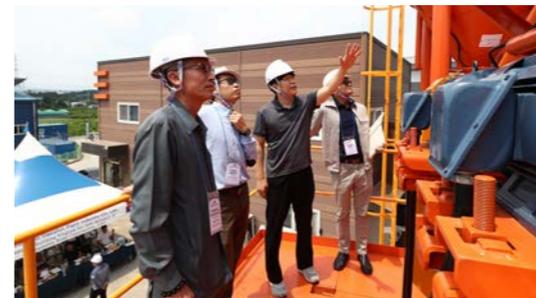
국토발전전시관 견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견학



고덕대교 현장 견학



이동식 플랜트 장비 견학_대신플랜트

연수 마지막 날 진행된 수료식에서 한국도로협회 노한성 국제도로센터장은 “이번 연수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의 도로건설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라오스 도로발전과 경제부흥에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앗나다 부롬 부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협회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이를 라오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남은 초청연수 2회 과정의 ‘라오스 도로 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은 연수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라오스 기술 발전 및 전문가 역량강화에 더 도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라오스 정부가 도로건설 자립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수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론 교육	한국의 도로포장 기술 발전사 (권수안 선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라오스 비포장도로 안전 향상 방안 (엄병식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의 도로 관련 조직 및 주요 정책 (여인수 실장, 한국도로협회)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권오선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배수성 도로포장 기술 및 품질관리 (이중섭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현장 교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견학 (도로포장시험실, 도로포장조사장비)
	대신플랜트 견학 (건설재료 생산설비 제작 및 이동식 플랜트 시험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 견학
	한국도로공사 사업단 견학 (서울세종 고속도로 용인-구리사업단 고덕대교)
국토발전전시관 견학	

현장 교육은 우리나라의 인프라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을 시작으로 플랜트 장비, 실험장비 및 시공현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앗나다 부롬 부국장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불과 몇 십 년 사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의 국토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고속철도, ITS 등 한국의 최첨단 교통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덕대교 현장에서는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고덕대교 건설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라오스 관계자는 “아직 개통 전인 교량을 방문한 것이 신기하다며, 한국의 교량 기술이 매우 놀랍다”고 말하며, 이어 “이번 ODA 사업으로 공여 예정인 이동식 플랜트를 제작하고 있는 대신플랜트 현장 기술도 라오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료식 단체사진